

“마지막까지 포기않는 골프정신, 청소년들에 나눠주고 싶다”

아시아인 최초 美 사회공헌상 수상 ‘기부천사’ 최 경 주

“골프로 인해 ‘나눔’(Sharing)이라는 귀한 말을 알게 됐습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골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를 모르던 많은 이들이 격려해주고 대가없이 물질적 후원을 해줘 골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런 경험을 통해 작은 나눔이 얼마든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고, 반드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기부천사’ 최경주(43·SK텔레콤)가 11일(한국시간) ‘꿈의 무대’ 마스터스 개막에 앞서 오거스타 내셔널GC에서 ‘찰리 바렛트상’(Charlie Barlett Award)을 수상했다.

미국 골퍼기자협회(GWAA)가 수여하는 ‘찰리 바렛트상’은 협회 초대 회장인 찰리 바렛트의 이름을 따 1971년 제정된 상으로, 사회봉사와 기부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적극 실천한 PGA와 LPGA 선수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42년간 단 32명의 선수에게만 시상할 정도로 영예로운 상이다.

역대 바렛트상 수상자는 타이거 우즈(2007년)를 비롯해 에니 엘스(2010년), 잭 니클러스(2009년), 그렉 노먼(2008년), 로레아 오초아(2011년)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포함돼 있다. 아시아 선수의 수상은 최경주가 처음이다.

◇영어로 7분간 수상소감 갈채=최경주는 ‘올해의 선수’로 뽑힌 매길로이에 이어 ‘찰리 바렛트상’을 수상한 후 ‘골프 연습장밖에 없던 작은 섬 완도에서’ 골프를 시작해 상을 받기까지 걸은 자신의 골프인생과 ‘나눔’에 대한 소감을 미리 준비한 영어 원고로 7분간 밝혀 시상식 참가자들로 부터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았다. 최경주는 시상식에서 읽을 영문원고를 2주에 걸쳐 직접 만들었다.

소감 7분간 영어 스피치... 뜨거운 기립박수

“나눔은 지갑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
더 많은 도움의 손길로 사회변화 기여”

최경주는 수상연설에서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눔의 방향을 찾았다. 큰아들을 낳은 뒤 불우한 환경 때문에 꿈을 꺾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현실을 알게 됐다”면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좌절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청소년들에게 마지막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골프정신을 나눠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또 최경주는 “나눔은 일은 지갑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갑이 두둑해지면 더 많은 도움의 손길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며 “돌아보면 제 작은 노력이 큰변화를 일으켰다고 자부한다. 오늘 받는 상은 앞으로 골퍼가 되고 싶고, 미국 PGA투어에 오고 싶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또 다른 꿈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경주는 “골이 OB가 나가거나 해저드에 빠지고, 벙커에 들어가고, 홀을 돌아나오더라도 골퍼가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불우한 환경에 처했어도 얼마든지 펼쳐 일어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또 재난을 당한 이웃들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연설을 마쳤다.

◇“꿈의 등지센터” 5년내 건립할 터=최

경주는 지난 2007년 (사) 최경주 재단을 설립,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 매년 최경주 재단에서 후원하는 골퍼 꿈나무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레슨을 하는 등 재능기부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배우 하지원의 이름을 딴 ‘하리스트’(하지원+아티스트) 장학금을 신설, 예체능 꿈나무 후원에도 발 벗고 나섰다.

최경주는 2008년 전남 지역아동센터에 5000만원, 2011년 완도에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1억원, 지난해 9월 태풍피해를 입은 고향에 태풍피해 지원금 1억원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랑도 꾸준히 했다.

또한 최경주는 재단 미국법인을 통해 ▲2008년 미국 텍사스 아이크 피해 복구 지원 ▲2009년 미국 허리케인 피해자를 돕기 위해 9만 달러 지원 ▲2010년 강진(強震)피해 지역인 아이티 긴급 구호를 위한 지원 ▲2011년 일본 대지진 긴급구호 지원 등 전세계 국가에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왔다.

최경주는 ‘마스터스’ 개막에 앞서 10일(한국시간) 5년안에 청소년 문화교육 센터인 ‘꿈의 등지센터’(Build a dream nest)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주가 11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덕 퍼거슨 AP 선임기자로부터 ‘찰리 바렛트상’을 전달받고 있다. <최경주 재단 제공>

“선수들 돈 걱정 없이 실력 쌓을 수 있도록
‘꿈의 등지센터’ 국가의 사회환원 사업으로”

최경주는 “한국에는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골프연습을 할 데가 없고, 이는 대표선수들도 마찬가지”라며 “소프트게임, 벙커, 파3홀을 갖춘 3층짜리 연습장을 지어 선수들이 돈 걱정 없이 실력을 쌓고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내가 죽고 없더라도 영원히 이곳에서 좋은 골퍼인재와 선수들이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드림센터는 국유지에 국비로 시설을 세우는 국가의 사회환원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주는 11일(한국시간) 밤 개막하는 마스터스 1라운드에 잭 존슨(미국), 그레이 맥도웰(북아일랜드)과 한 조에서 플레이한다.

한편 2000년 한국인 최초로 PGA투어 선수가 된 최경주는 2002년 컴팩클래식에서 첫 우승을 따낸 뒤 2011년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어스챔피언십 정상에 오르며 통산 8승을 달성했다. 2007년 메모리얼 토너먼트와 AT&T내셔널에서 2승을 거두며 처음으로 세계랭킹 ‘톱10’에 진입한 뒤 2008년 소니오픈 우승까지 거머쥐면서 최고 기록인 세계랭킹 5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2일에는 아시아 골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아태골프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 학생 1인당 보조금 ‘전국 꼴찌’

정희곤 시의원 시정질문... 학교용지부담금 최대 21배차

11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천차만별인 광주 학교용지부담금과 ‘전국 꼴찌’인 광주 학생 1인당 보조금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정희곤 교육의원은 이날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지역 택지개발지구의 세대당 학교용지 부담금이 최대 21배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라며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LH공사가 같은 시기에 시행한 동림 2지구의 학교용지 부담금은 17억2651만2000원이 부과됐지만, 신창지구는 부과되지 않았다.

세대당 학교용지 부담금도 첨단 2지구

(4000세대)는 163만9350원에 달한 반면, 진월지구(3882세대)는 7만7762원으로 21배 차이가 났다.

이밖에 ▲동림 2지구(6082세대) 28만3872원 ▲수완지구(2만4756세대) 70만6838원 ▲선운지구(5083세대) 16만6286원 등이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학교용지의 위치나 규모, 매입시기, 기반시설 등에 대해 협의한 뒤 광주시 교육청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2011년 기준 광주시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학생 1인당 1만6000원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낮다”고 대책마련을 요

구했다. 정 의원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2년 11월 발간한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보면 2011년 광주지역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은 전국 16개 시도 평균 13만2900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광주시장과 각 자치구청장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자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학생 1인당 보조금은 9만4600원으로 인천이 17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14만3500원 ▲울산 5만2800원 ▲대전 5만400원 ▲부산 3만2600원 ▲대구 2만4600원 순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새정부 첫 정부합동감사 촉각

인사·공금유용·보조금 특혜·인허가 등 대상

전남도가 새 정부 들어 첫 정부합동감사를 받게 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도정 전반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받는다.

이번 감사에는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 12개 부·처·청 감사관 39명이 참여해 지난 2010년 이후의 국가 위임사무와 자치 사무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인사업무, 공금 활용, 보조금

관련 특혜, 각종 인·허가 등이 중점 감사 대상이다.

앞서 합동감사관은 지난달 8일에 거쳐 전남도를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펼쳐 314건의 자료를 검토했고, 이번 합동감사에서는 이들 자료 등을 집중 감사하게 된다.

한편 합동감사는 매년 지자체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전남도는 2010년 합동감사를 받아 일반행정과 도시건축, 소방 등 185건을 지적받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임 영산호농업박물관장에

김우성 광주일보 논설실장 선임

전남도는 11일 개방형 직위로 최근 공모한 영산호농업박물관장에 김우성(54)씨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진도 출신인 신임 김우성 관장은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광주일보 편집부장과 문화홍보국장, 논설실장 등을 거쳤다. 영산호농업박물관은 지난 1993년 개관했으며 전시실과 남도생활민속관, 농경문화체험관, 야외전시장 등을 갖추고 농업 관련 전시를 열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한약 · 국산 · 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약재 모독 독활 분양

이전약도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광주결혼문화원

금호아파트 54, 39, 87, 160, 419
서방사거리 육교정류소 06,19,83,180,184
4,19정류소 55,98,151,518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553-14
062)223-3399 / 223-6664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 · 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 · 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호남직업전문학교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 062)952-5577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 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계림동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 KT ● 중앙초교 ● 금남로 ● 계림동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 일 : 오전9시~오전5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5-26%호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슈니팡) & 버블팡(버블음료)

3호점 슈니팡&버블팡 메가박스 광주점 4월 5일(금) 14시

파레스 호텔 ● 민속촌 ● 무진주 ● (구)런던약국사거리 ● 메가박스 개업시음 슈니팡 3개 구매시 영화권(2장) 버블팡음료 1잔 무료증정

4호점 순천 연합점 4월 20일(토) 14시

5호점 광주 전남대점 4월 26일 6호점 광주 봉선점 4월 26일
6호점 전남 함평점 4월 26일 7호점 광주 상무점 5월 3일
7호점 광주 문흥점 4월 26일 8호점 광주 수완점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슈니팡&버블팡
광주 · 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